



Programs

1. Showcase

- The Dog Floating in the Sky by LEE Tae-sang D.T.1
- Mating Dance by Sungsoo Ahn Pick-Up Group
- Solo Party by Blue Elephant
- About Three Aims by Park Na Hoon Company
- Circle-After the Other by Ahn Aesoon Dance Company

2. Debate Forum

- Date & Time: 28 November 15:00
- Location: CCSP
- Subject: Contemporary Dance scene of Korea and Brazil

3. Reception

- Date & Time: 26th of November, 20:00
- Location: Cacilda Becker

4. Workshop

1) Improvisation Meeting Encontro de Improvisação

- Date & Time: 24 November, 12:00
- Location: CCSP Sala Adoniran Barbosa

2) Brazilian Contemporary Dance

- Date & Time: 25 November, 10:00 A.M
- Location: CCSP
- Lecturer: Brazilian choreographer

3) Open Class

- Date & Time: 25th of November, 13:00 P.M
- Location: CCSP
- Lecturer: Korean choreographer

Debate Forum

November 28, 2009
Centro Cultural São Paulo

Panelists

Kim, Kyoung-ae, Dance Critic
Lee, Jong-ho, Dance Critic,
Artistic Director of Seoul Int'l Dance Festival



한국 현대무용의 현황

마사 그레이엄의 영향과 한국현대무용

한국에서는 2006년도 기준 연간 총 2,085회의 춤 공연이 열리고 있다(2007년, 1775회. 문예연감 통계) 이 가운데 현대무용이 2006년 455회, 2007년 349회를 기록했다. 한국무용이라고 분류되는 전통 춤에 기반을 둔 한국창작무용이 2006년 397회, 2007년 152회인데 이들도 엄밀히 보면 현대무용으로 수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연간 1천여 회의 현대 춤이 전국적으로 열리고 있다. 서울은 전국의 약 45%의 점유율을 기록한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규모에서 볼 때 이 같은 현대무용의 왕성한 공연행위는 세계적으로 무용공연이 많이 열리는 상위 몇 나라에 들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기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국내 현대무용 공연이 팽창하고 있고, 이를 구성하는 전문무용단도 대략 150여 개 단체로 추정을 하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 배경은 한국의 특수한 무용환경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대학에 무용학과가 많다는 점이다.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대학 무용학과가 많다. 1963년 이화여대에 처음으로 무용학과가 설치되어 대학 춤 교육이 시작되었다. 미국은 대학에서의 춤 교육이 춤 창작 위주로 되어있지만 한국의 대학 춤 교육은 한국 춤, 현대 춤, 발레의 소위 3분법 실기 교육을 고착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대학이 무용사회를 키우고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순기능이 있었지만, 무대를 기본으로 하는 무용예술과는 또 다른 차원의 전문가인 대학교수, 무용학자, 무용교육자와 혼동되는 역기능도 있었다. 대학의 힘이 스폰서가 되는 절실한 시절이 과거 30여 년간 있었지만, 춤 공연이 팽창되는 현재 전문무용가의 단체 활동과 대학무용이 괴리되는 현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1960년대 이전의 연구소 시대, 1970년대 이후 대학무용 시대, 2000년 이후 전문무용단 시대로 개략적인 구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화여대 현대무용 파트 교수인 육완순⁹은 미국 일리노이대학과 마사그레이엄스쿨에서 수업 받은 인물로 미국 대학의 무용단을 모델로 1963년 오케시스(Orchesis) 무용단을 만들어 무용발표회를 갖는다. 그리고 1975년 한국컨템포러리무용단⁹을 이화여대 졸업생들로 창단한다. 이것이 본격적인 현대무용단의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물론 육완순 이전의 배우자, 최승희, 조택원의 신무용은 물론 정막, 김상규, 송범, 박외선 등은 당시 일본을 통해 들어온 독일 마리 뷔그만(Mary Wigman)의 노이에 탄츠(Neue Tanz) 계열의 세례를 받은 것이었다. 육완순의 역사적인 위치는 미국 현대무용을 도입하여 대중에게 현대무용이란 장르를 널리 알린 것으로 꼽는다. 그의 활발한 공연활동이 타 장르 무용에 까지 영향을 미치며 발전을 했기 때문에 육완순을 기점으로 현대무용사를 잡기도 한다.

그녀는 이화여대를 근거로 인물 배출에 큰 공적이 있다. 하정애, 이정희, 김복희⁹, 김화숙, 박명숙 등 본격 현대무용 1세대의 인물들을 위시해서 여성 군단을 이루며 현재 현대무용계를 구성하는

중추적인 인물인 안애순, 이윤경 등을 배출시켰다. 대략 10년 전까지 이화여대는 한국현대무용의 메카라는 별명을 들었다.

1975년 한국컨템포러리무용단의 첫 공연은 크리스천 아카데미 하우스 팔각정이라는 정식극장이 아닌 야외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는 극장의 고정 틀을 깨는 춤 관념의 탈피로 획기적인 무용운동의 출발이었다. 음악, 미술 등 주변 예술인들과의 공동 작업을 통해 낮은 춤의 지위를 올렸다.

당시 한국을 방문했던 외국무용단의 영향도 컸다. 프랑스의 롤랑쁘띠발레단(Roland Petit Ballet Company), 독일의 쾰른발레단, 스크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을 공연한 피나 바우쉬(Pina Bausch) 무용단 등이 과감한 표현기법으로 우리 초창기 현대무용가들에게 자극을 주었다.

그러나 컨템포러리무용단의 육완순 전두 지휘하의 마사 그레이엄식 추상적인 춤 일변도와 그의 독주는 자연스럽게 이탈 세력을 맞이하게 된다. 1971년 김복희·김화숙 무용단은 서구인의 것인 현대무용에 우리 토속적인 것을 접합시켜 이른바 한국현대무용을 추구한 이후 한국적 소재와 무용무용 기법 개발에 적극적이었다. 이정희는 표현주의적 색채가 강한 제례와 율동, 그리고 주술적 샤머니즘의 응용으로 몽크의 그림을 연상시키는 인간 내면의 깊이를 끌어올렸다. 이정희는 이미 80년대 초 [비디오 앤 댄스]로 춤과 영상을 접목시키는 작업을 보여주었다. 프랑스에서 귀국한 남정호는 빠른 템포의 율동미, 유희적 세계관을 보여줘 현대무용을 관념 이상의 세계로 이끌었고, 영국 라반센터(Laban Centre for Contemporary Dance)에서 수학한 최청자⁹는 발레를 기본으로 한 고난도의 테크닉으로 현대춤의 세계를 열었다. 마사 그레이엄을 모던 댄스로 지칭할 때 이들은 세계 조류에 맞춰 포스트 모던 댄스의 세계를 열었던 것이다. 미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여러 사회적인 측면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1960년대 초반에 시작된 미국 저드슨 처치(Judson Church)의 포스트 모던 개념이 이미 들어와있었던 것이다. 전위무용가로 지칭되었던 홍신자⁹의 파장도 역할을 했다.

컨템포러리무용단을 중심으로 발아, 육성되었던 육완순의 마사 그레이엄 스타일은 그 제자들의 시대대의식과 함께 우리 것 찾기의 미학, 탈 미국화의 세계적 조류 등으로 많은 검토가 이루어진다. 육완순은 특이하게 자기 단체 혹은 자기 무용 세계에서 마사 그레이엄 스타일만 고집한 것은 아니다. 그녀는 초창기 프린티어답게 질적인 세계보다는 현대무용 세력을 확장시키고 사회에 점유율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두고 열정적으로 양적인 팽창에 주력한 것이다. 한국현대무용협회⁹ 창설, 춤 소극장 운동, 무용페스티벌의 개최, 국제무용제전을 통한 국제화 도모 등을 그녀의 업적으로 들 수 있다.

현대 춤의 부흥기 1980년대와 90년대의 포스트모던댄스

한국컨템포러리무용단 창단 후 90년대 말까지 50여 개 대학 무용학과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자리를 잡는 교수 무용가들이 졸업생 동인 무용단을 만들게 된다. 정부가 지원하는 창작무용 무대 대한민국무용제(현재의 서울국제무용축제(1979년 설립), 그리고 춤 평론가를 배출한 월간 [춤]지(1976년 창간)⁹는 이들의 창작 정신 고취와 사회적 건인의 역할을 하게 된다. 대한민국무용제와 [춤]지는 무용계를 끌어가는 수레의 두 바퀴라고 지칭되기도 했다.

춤 소극장 운동은 1980년 공간사랑에서 [현대무용의 밤]으로 시작되어 무용의 다변화에 크게 기

여한다. 이른바 포스트 모던댄스의 확장이다. 소극장의 작품 경향은 무용수의 동작 자체를 강조한 경향, 극적 표현성에 접근하는 경향, 미니멀리즘의 패턴을 사용한 경향, 현대의 기계적 메커니즘을 사용한 경향, 동작의 상징성과 그 이미지를 결합한 경향, 다양한 양식을 결합하여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경향 등을 특징으로 한다.

포스트 모던이란 용어는 그 뜻의 다의성(多義性)과 모호함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스타일과 연관시킬 수 없는 문명사 전체의 차원에서 새롭게 이해하려는 시대사적 개념으로 이해된다. 포스트 모던댄스의 개념도 모더니즘적 세계의 획일화에 반대한 철학이나 문학이론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세계 무용학자들이 지적한 포스트모던댄스의 기본적인 개념이 서울의 현대무용가들에게도 수용이 되었다. 현대 춤이 거부한 발레 동작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걸음걸이부터 시작해 어떤 움직임도 무용의 소재가 되며 어떤 진행도 춤의 가치 있는 구성 수단이고, 음악·의상·장치 등 바그너의 융합적인 종합예술의 원리가 아닌 이합적 총체성의 논리로 구성된다는 브레히트의 소외교과에 기반하고 있다. 또 어떤 신체 조건의 무용수도 춤을 출 수 있다는 미(美)와 추(醜)의 개념이 뒤바뀌는 현대성을 수용한다. 우연성, 순간적인 즉흥, 신체간의 접촉, 공연에 있어서의 실제시간의 이용, 해프닝, 반복, 일상적인 동작과 춤 동작의 콜라주, 이사도라 던컨의 자유정신의 회복 등이 춤 방법이 되어 관객에게 군림하는 공연자의 자세가 아니라 관객과 같은 입장에서 현실을 풀어내면서 공연행위가 다양화 된다.

극장 공간을 떠나 그 어느 장소도 춤 공연장소가 될 수 있으며, 관객은 작품의 일부로 등장되기도 한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극의 목적이 연민과 공포를 통해 카타르시스를 불러일으켜 인간 치유에 있다는 것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지적(知的) 실험정신에 입각해 있는 것이다. 춤추지 않는 무용수의 효용을 실험해보기도 하고 신체 표현을 말이나 소리로 깊이 있게 사용한다. 한국 정치 상황을 계몽하려는 목적으로 춤이 쓰이기도 한다. 격변의 정치파동에 참여를 호소하는 일군의 무용가들의 공연행위도 있었다.

1980년대와 90년대는 현대 춤의 부흥기로 불린다. 미국과 유럽의 새로운 정보들, 환경의 변화 등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확장되기 시작한다. 한국 현대 춤의 영향을 준 미국과 유럽과 그것이 전파 이식되었던 아시아나 중남미간의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었고, 무용단의 구조와 그것이 수용되고 있는 극장의 구조, 그리고 여러 예술제의 운영이나 프로그램이 매우 조직화되면서 현대 춤이 뚜렷한 색깔을 갖게 된다. 이와 더불어 한국 현대 춤의 독창적인 춤 기법 개발을 큰 숙제로 안고 있던 우리 무용가들에게 일본 부토(舞踏)의 성공 사례는 귀감이 되는 바가 컸다. 우리 무용가들은 움직임에 대한 인식의 문제, 춤과 극과 극장술의 문제, 그리고 춤과 세계관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게 된다. 무용가들이 직접 보고 접하고 교육을 받고 동시에 평론가들의 새로운 것에 대한 주문에 힘입어 움직임에 대한 인식, 춤과 극 및 극장술에 대한 태도가 많이 변하게 된다. 춤의 형태미나 맵시미를 벗어나 보다 근원적인 춤 어휘를 인식한다. 세계춤의 탈 미국화에 편승해 1990년 후반부터는 프랑스, 독일 등의 영향을 더 받게 된다. 작품 형식상의 경향도 바뀌면서 동시에 작품 주제에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크게는 한국 전통의 현대화 작업과 작품의 사회성 발언의 강화로 꼽을 수 있다. 춤의 세계관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서 단순 맵시미를 자랑하던 단계에서 벗어나 춤이 예술작품으로서 나름대로의 자아 인식과 세계관, 그리고 실천행위로까지 발전한 것이다. 따라서 표현기법보다는 작가 정신, 즉 세계관의 노출을 요구박도 있는 현대 춤은 어떤 정형화된 춤 테크닉과 미학상의 원칙을 부인한다. 좀더 다양한 인식과 관점이 투입되기를 요구 받고 있다.

현대무용가의 직업화와 안무가 집중지원의 과제

2000년대 인터넷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생활의 혁명을 맞은 무용사회는 이를 적극적으로 춤 무대에 수용했다. 공간의 확장과 다양한 매체의 활용, 극장을 탈피한 춤들의 자유 발언, 미디어 댄스 등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춤 작업들이, 한국적 정서의 승화와 자아 찾기, 한국적 상징과 여성성 추구, 춤으로 풀어낸 종교와 제의, 유희와 풍자의 춤으로 정리되어온 춤의 주제를 내재하면서 과격하게 변화했다. 한국식 삼분법인 한국 춤, 발레, 현대무용의 장르 해체가 본격화되었고, 대학 위주의 춤 사회가 파괴되기 시작했다. 특정 춤의 개인집단, 지역을 탈피하는 경향이 심화되어 이른바 독립 춤 세대가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특히 1990년대에 등장한 독립 춤 세대는 90년대 춤계의 동향을 잘 말해준다. 독립 춤은 그 어의상 독보적인 양식으로 정립된 춤 예술·비예술적 자본과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춤 예술을 의미하겠으나, 춤계 내부에서는 대체로 기존 춤계로부터 독립된 활동 방식을 선호하는 무용인이나 집단을 의미하는 쪽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독립 춤은 90년대 춤계에서 진행된 분권화 현상의 연장선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특히 대학무용의 틀에서 벗어난 젊은 무용가들의 독자생존은 뜻한다. 안애순, 홍승연⁹, 박호빈⁹ 등은 비교적 잘 안착한 독립 춤 단체를 이끌고 있다.

또한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⁹은 특히 역량 있는 무용수들을 배출해냈다. 이 탁월한 기교의 무용수들은 독립 무용가들의 활동에 크게 기여해 현대 춤의 메카로 불린 이화여대는 그 명색이 퇴색해졌다. 콩쿠르를 통한 군대 면제 제도에 힘입어 남성 무용수들이 두터운 층을 이루게 되어 한국무용수들의 무용기량은 세계적으로 어디에서나 인정을 받고 있다. 한국 현대무용의 강점은 무용수의 기량인 반면, 약점은 안무가의 독창성(originality)이다. 한국정부의 지원은 적은 편은 아닌데, 안무가를 키워내는 지속적인 지원이 아직 체계를 이루지 못했다. 특히 현대무용이 아직 직업화의 터전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금년 들어 서울에서 처음으로 공연장 상주단체 제도를 실험하고 있고, 서울지역에 처음으로 국립현대무용단을 창단한다는 정부 방침이 발표되었다. 전국적으로 26개의 국립·시립무용단들이 있지만, 한국전통무용 일색이다. 역량 있는 안무가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고, 직업현대무용단이 늘어나야 하는 것이 최대 숙제이다.



김경애

월간 [한국 연극] 편집장과 국립극장 기획단원을 거쳐, 1986년부터 1998년까지 월간 [춤] 편집장으로 활동하였다. 미국 게일리서치사 발행 [세계현대무용사전] 편집위원, 한국춤평론가회 회장, 아르코예술극장 기획운영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월간 [댄스포럼] 발행인 겸 편집인이며, 국립발레단 자문위원장 및 국립무용단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또한 춤 평론가이자, 중앙대 예술대학원 강사로도 활동 중이다.



한국무용계의 국제교류 현황과 전망

예외적 선구자들

한국 무용계가 본격적인 국제교류에 눈뜨기 시작한 것은 그다지 오래된 일이 아니다. 특히 외국 무용의 수입이 아닌 한국무용의 수출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이제 시작단계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물론 일제 시대(1910-1945)와 1950년대 이후까지 최승희(崔承喜, 1911-1969)나 조택원(趙澤元, 1906-1976) 같은 불세출의 무용가들이 아시아는 물론 아메리카 대륙과 유럽을 넘나들며 한국무용의 독특한 아름다움과 안무능력을 과시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한국이라는 국가 사회 혹은 그것을 기반으로 한 무용계라는 집단의 힘이 배출한 대표선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 개인의 천재성 혹은 불굴의 노력의 산물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최승희(서양에서는 Sai Shoki라는 서양식 표기로 알려짐)가 장 콕트나 피카소 같은 당대의 거물들과 교류했다는 사실, 브뤼셀의 국제무용경연대회에서 마리 뷔그만(Mary Wigman) 과 함께 심사위원석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는 사실, 조택원이 파리와 미국을 넘나들며 500회 이상의 공연을 하면서 제이콥스 필로우 축제(Jacobs Pillow Dance Festival)와 Brooklyn Academy of Music(BAM)에서 공연하고 루스 세인트 데니스(Ruth St. Denis)와 긴밀하게 교류했다는 점은 국제 교류는 꿈꾸기도 어려웠던 일개 식민지, 혹은 식민지 상태를 겨우 벗어난 아시아의 작은 나라로서는 분명 경이로운 일이었지만 그것은 결코 일반적 현상은 아니었다.

이들 두 예외적인 인물을 제외한다면 해방 이후 한국무용의 국제무대 진출은 대부분 민속과 전통에 국한돼 있었다. 그것도 민간 예술가들보다는 정부가 파견하는 관립무용단, 관립예술단이 거의 전부를 차지했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 다소간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창작무용이 어느 정도 모양새를 갖추고 국제 교류를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이후라고 보아야 한다. 해방 이후 클래식 발레와 전통무용이 강세를 누리면서 상대적으로 창작무용(넓은 의미에서 현대무용이라고 하자)은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던 한국 무용계는 1970년대 후반부터 서양식 현대무용과 창작 한국무용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80년대에 들어서는 무용의 르네상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갖가지 실험과 시도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를 차리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무용유행의 대상지라고 하면 99% 미국이던 것이 조금씩이나마 유럽 등 다른 지역으로 다양화하기 시작한 것도 무용계의 국제감각 획득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소규모 축제나 대학 무용과를 통해 조금씩 서양이나 일본의 현대무용이 소개되기는 했어도 본격적인 수준은 아니었으며 한국 무용작품의 해외진출은 더욱 미미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이른바 국제화, 세계화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된 무용계는 이런저런 경로로 외국인

출을 탐색하기 시작했고 그 중 대표적인 단체가 창무회⁹이다. 창무회는 전통에 기반을 둔 창작 한국 무용을 표방하면서 일찌감치 한국무용의 현대화, 보편화에 몰두했으며, 국제무대 진출에 있어서도 가장 부지런하고 가장 효과적이었다. 이미 1980년대 중반부터 미국, 중미, 유럽, 아시아 등을 순회하면서 독특한 작품세계를 선보였다.

창작능력의 증진과 국제교류의 본격화

이후 이런저런 무용가와 무용단체들이 나름대로 국제진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늘 좋은 성과를 낸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국제무대에 자신 있게 내놓을 만큼 국제적 수준에 도달한 창작품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며 둘째로는 항공료나 제작비 등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만한 정부나 기업의 도움이 별로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에는 1973년에 한국문화예술진흥원(현재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생겨 예술가들에게 적잖은 후원을 제공했으나 국제교류에는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 해외연수를 원하는 신진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정도가 고작이었다. 문화체육부나 역시 불과 5-6년 전까지만 해도 현대예술의 해외진출 지원에는 큰 관심이 없어서 주로 전통예술의 진출에 지원을 선호했다(물론 전통예술의 해외진출 지원에는 지금도 여전히 적극적이다). 또 하나의 주요 지원기관인 외교통상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 역시 현대무용의 진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라고 해야겠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최근 수 년 전부터 크게 바뀌고 있다. 한국의 현대무용으로서는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은 위에서 말한 두 가지, 즉 정부의 현대무용 지원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 데다 안무가들의 창작능력이 과거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과거 한국 현대무용의 해외진출이라고 하면 중간 수준의 작품들이 외국의 작은 행사에 참가하는 정도가 고작이었으나 요즘은 양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교류 증진의 주역들은 연령대로 보아 30-40대의 신진/중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채널과 네트워킹

외국 무용가들이 한국의 무용계와 교류할 수 있는 길은 과거에 비해 무척 다양해졌다. 과거에는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전당 같은 대형 공연기관들 또는 언론사들이 주최하는 외국무용단 초청공연이 종종 열리는 정도였다. 좀더 전문적인 무용 교류라면 대학 무용학과와의 교섭을 통해 무용가들이 워크숍을 진행하거나 교내 공연을 하는 정도였고 소규모 무용행사들이 생겨나면서 이따금 외국의 무용단체가 초청받아 무대에 서는 정도가 고작이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에 걸쳐 본격적인 무용축제가 생겨나고 서울과 지방에 일정 수준을 갖춘 공연장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이중 대표적인 경

우가 서울세계무용축제(SIDance, Seoul International Dance Festival)의 출범이다.

시댄스는 1998년 10월 유네스코 국제무용협회(CID-UNESCO)¹⁹ 한국본부가 제13차 CID 세계 총회를 서울로 유치한 것을 계기로, 국제무용계의 새로운 조류를 국내에 소개하고 한국무용을 국제무대에 알리는 한편 대중성이 취약한 무용장르의 사회적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만들어졌다. 규모와 품질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무용행사로 인식되고 있는 이 축제는 특히 국제 교류에 역점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 20건 이상의 국제협력(공동제작, 공동위촉, 인적 교류 등)을 수행했다. CID 한국본부는 시댄스 개최 외에도 로잔국제발레콩쿠르(Prix de Lausanne)의 한국 내 연락 사무소 역할, 전통무용 및 현대무용의 해외 소개, 학술활동 등 다양한 무용 관련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제현대무용제(MODAFE, International Modern Dance Festival)²⁰의 변신도 주목할 만하다. 이 행사는 원래 1980년대 중반 시작돼 주로 국내 안무가들의 창작발표 무대로 활용되면서 한국 현대무용의 발전에 큰 역할을 했고 간간히 소규모 외국단체도 초청 소개했으나 이후 한국의 현대무용계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되고 발전의 중심축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면서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떨어졌다. 그러나 이 축제의 주최자인 한국현대무용협회는 2007년 다소간 큰 금액의 정부지원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면모를 일신, 국제현대무용계의 최신 동향을 반영하는 행사로 성장하고 있다.

종합적 성격의 공연예술 행사인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 Seoul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²¹도 무용 부문을 크게 보강하고 있다. 이 행사는 원래 연극, 무용, 음악을 아우르지는 취지로 만들어졌으나 실제로는 연극과 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으며 갈수록 무용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올해 제22회 행사를 치른 부산국제여름무용축제(Busan International Summer Dance Festival)가 가장 오랜 전통을 자랑하고 있다. 이 행사는 특히 한 대학(경성대학교) 무용학과가 꾸준히 주관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예산도 그리 많지 않지만 실내외 공연과 워크숍, 세미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꾸미고 있다. 소규모 공연을 원하는 외국무용단이 라면 접촉해볼 만하다. 금년에 5년째를 맞은 부산국제무용제는 작년부터 예산이 부쩍 늘어나면서 규모도 커졌는데 행사의 성격과 지향점에 대해서는 아직도 주최측의 고민이 계속되고 있는 듯하다. 역시 2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창무국제예술제는 과거 아시아 무용의 소개 위주에서 벗어나 범주를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밖에 대구국제현대무용제, 안동국제현대무용제, 천안현대무용제 등 여러 축제가 있으나 일부는 예산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중단된 것들도 있다.

축제 외에 극장이나 센터 중심으로 교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고작 외국무용을 불러 무대에 세우는 정도이다. 이런 점에서 국내 신진 및 중견 무용가들의 무대를 마련하면서 외국의 기획자들을 초청해 교류를 시도하고 있는 무용전용 소극장 M극장²²의 존재는 예외적이다.

이러한 무용계의 최근 노력에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이 2005년 출범한 서울아트마켓(PAMS, Performing Arts Market in Seoul)²³이다. 마켓의 필요성을 역설해온 공연예술계의 지속적인 설득을 정부가 받아들여 만들게 된 이 연례행사는 무용에서 SIDance, 연극에서 SPAF 등을 파트너로 삼아 한국의 무용, 연극, 음악 등을 외국 기획자들에게 소개하는 일을 정력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이제는 단순히 한국 공연상품의 소개를 넘어 외국단체/기관들을 소개하는 데까지 활동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가장 효과를 보고 있는 분야는 아무래도 음악이지만 무용 역시 PAMS의 직·간접적인 도움이 많이 받고 있다.

현재 한국의 무용계는 그간의 양적, 질적 성장을 토대로 글자 그대로 도약대에 서 있다. 이런 점에서 국제 무용계는 한국과의 교류를 좀더 염두에 두어도 좋을 것이다. 아마도 한국 내에서는 무용의 본격적 국제교류를 실현하기 위해 창작, 유통, 보급, 교육 등을 정책적, 실무적으로 이끌어갈 정부 혹은 준 정부 차원의 조직이 없다는 사실이 조만간 문제점으로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종호

1996년부터 CID-UNESCO(유네스코 국제무용협회) 한국본부 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1998년 서울세계무용축제(SIDance)를 창설, 집행위원장 겸 예술감독을 맡고 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 춤평론가협회 회장, 2004년부터 2008년까지 AAPAF(Association of Asian Performing Arts Festivals) 집행이사를 역임하였다. 공연예술 전문지와 일간지 등에 무용평론과 문화시론을 꾸준히 기고해 오고 있으며, 올해의 무용가상, 서울무용제, 제1회 모스크바 디아길레프 국제발레 대회 등의 심사위원으로 초대되었다.

문화관광부 장관 표창, 현대무용진흥회 IDD(국제교류발전)상, 한국춤평론가회 2008 무용비평가상 특별상 등을 수상했으며, 2007년 프랑스 정부로부터 문화예술공로 슈발리에장(Chevalier dans l'ordre national des arts et des lettres)을 수여받았다.

- ① **육완순**(陸完順, 1933~)은 대한민국의 현대무용가이다. 이화여대 체육과에서 무용을 전공한 뒤 동대학원에서 현대무용을 전공하였다. 이후 미국 일리노이 주립 대학교 대학원에서 현대무용을 전공했으며, 마사 그레이엄 무용학교에서 현대무용을 사사했다. 1962년 제1회 육완순 귀국무용발표회를 통해 《흑인영가》와 《공포》, 《마음의 파도》 등을 소개했는데, 미국의 현대무용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소개했다는 점에서 무용계의 주목을 끌었다. 그 후 1972년까지 미국과 서울에서 7회의 무용발표회를 개최했고, 또한 무용관계 논문을 집필하여 교육무용의 이론화에 공적을 남겼다. 주요 작품으로는 《부활》, 《황무지》, 《단군신화》 등이 있다.
- ② 1975년 육완순이 창단한 **한국컨템포러리무용단**은 한국현대무용단의 효시로 꼽히며, 대한민국 현대춤의 세계를 구축한 무용가의 상당수가 거쳐간 곳이기도 하다.
- ③ **김복희**는 이화여대 무용과에서 육완순으로부터 현대무용을 사사하였으나, 대학 졸업 후 육완순의 현대무용 유파로부터 이탈하였다. 현대무용의 형식에 한국적 내용을 담아내는 것이 특징으로, 불교적 색채가 강한 데뷔작 『법외의 시』 이후 한국의 전통 문물들을 춤으로 형상화하였다. 그녀의 작품은 한국의 민담과 불교의 설화를 소재로 하여 자아완성, 해탈 윤회 등의 주제를 춤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 ④ **최창자**는 마사 그레이엄 시스템의 미국 현대무용 대신 런던 골드스미스컬리지 라반센터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루돌프 폰 라반(Rudolf von Laban)의 창작개념과 움직임의 원리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았다. 작품을 통해 관객에게 감각적 자극을 제공하는 동시에 현대무용이 가진 자유롭고 진취적인 창작성을 보여주고자 했다. 춤의 창조적 활동과 교육적 활동 모두 활약하며 한국현대무용협회를 역임하기도 하였다.
- ⑤ **홍신자**는 한국의 전위무용가로, 해탈과 달관 등의 철학적 주제를 춤으로 형상화하였다. 니콜라이 무용학교에 입학, 이후 콜럼비아대학교와 뉴욕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밟았으며 여러 무용 스튜디오에서 수련하였다. 1976년부터 인도에 3년 머물며 그녀는 오쇼 라즈니쉬와 니사가다타 마하라지(Nisargadatta Maharaj)에게서 명상법을 수련하였으며, 인도 예술가들에게서 인도 춤과 노래를 전수받았다.
- ⑥ **한국현대무용협회**는 1980년 설립되었으며, 창작 및 연구, 교육, 신인육성, 출판, 국제교류, 자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국제현대무용제(MODAFE), (사)한국현대무용협회 공쿠르, '생생' 춤 페스티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 ⑦ 1976년 창간된 **춤**은 대한민국의 본격적인 무용평론의 장을 연 월간지로, 현역 무용평론가 대부분이 [춤]지를 통해 등단했다. 국제 무용계 소식을 전하는 한편, 무용관련 자료와 기록의 보존, 무용과 인접 예술의 교류 등에도 힘쓰고 있다.
- ⑧ **홍승엽** 안무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는 새로운 움직임의 개발로, 여기에 무대 공간의 적절한 분할, 음악, 조명과의 조화를 꾀하고, 주로 작품의 중반 이후 소품이나 무대세트를 이용해 메시지를 전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꾀한다. 1993년 「댄스 씨어터 온」 무용단을 창설, 실험적이고 다양한 예술장르와의 접목을 시도하는 동시에 미장센의 적극 활용 등을 통해 새로운 움직임의 창출과 조합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 ⑨ **박호빈**은 중요무형문화재 제17호 「봉산탈춤」 전수자로, 국내 유수의 무용단원을 거쳐 2004년 현대무용단인 「댄스씨어터 까두」를 창단하였다. 예술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지향하며, 춤과 함께 영상, 음악, 의상 등을 적극 활용하며, 주제에 있어 현대 문명, 인간의 본성, 사회적 관계 등이 주된 모티브로 삼는다.
- ⑩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예술전문가 양성을 위해 국가에서 설립한 교육기관이다. 1996년 설립된 무용원은 국내외 유명 무용공쿠르에서 다수의 입상자를 배출했으며, 수많은 전문 무용수를 양성하였다.

- ⑪ **신무용의 창시자로 불리는 최승희**는 1926년 일본에 유학하여 현대무용가 이시이 바쿠에게서 사사 받았다. 일본 유학 이후 국내에서 독자적인 근대 무용 공연을 통해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모으게 되었고, 《반도의 무희》(1936) 영화 출연 및 자서전 《나의 자서전》(1936)을 발간 등 유명세를 떨쳤다. 1930년대 후반에는 수년 동안 해외 순회 공연을 벌이면서 세계적인 명성도 얻었다. 광복 후 월북해서 최승희무용연구소를 세워 소장에 취임하고 공훈배우, 인민배우 칭호를 받은 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선출되기도 했다.
- ⑫ **조택원**은 1926년에 일본의 근대 무용가인 이시이 바쿠의 신무용 공연을 보고 도쿄로 건너가 서양 춤을 배운 뒤 1930년대에는 프랑스에서 유학했다. 일제 강점기 동안 한국 신무용의 창시자 최승희와는 양대 산맥으로 불렸으며, 한국에 무용극이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후 미국에서 현대무용가 루스 세인트 데니스의 후원으로 순회공연을 가지고 이후 유럽과 미국에서 500여 회의 공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974년에 문화훈장을 제1호로 수상했다.
- ⑬ **창무희**는 우리나라 전통춤을 토대로 한 현대무용의 창작을 위해 무용가 김매자가 1976년 창단하였다. 무용과 인접예술분야의 크로스오버로 한국현대무용의 영역을 확장시켰으며, 국내 및 해외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⑭ **유네스코 국제무용협회(CID-UNESCO)**는 Conseil International de la Danse의 약칭으로 영어로는 IDC(International Dance Council)이라고 한다. 1973년 유네스코의 후원과 격려 아래 출범한 CID는 유네스코의 공인을 받은 유일한 국제무용기구로 전세계적으로 무용 발전을 위해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유네스코가 인정한 유일한 민간 국제 무용기구이다.
- ⑮ **국제현대무용제**는 1982년 창설, 2009년 28회를 맞이하였으며, 한국의 대표적인 현대무용축제 중의 하나로 지금까지 해외 100여 단체와 국내 300여 단체의 공연을 소개해왔다.
- ⑯ **서울국제공연예술제**는 2001년 창설된 대한민국 대표 공연예술축제로, 모든 장르의 공연예술을 선보이며 국제적 견본시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매년 10월~11월 사이에 개최되며, 2009년 12개국 40작품을 소개하였다.
- ⑰ **M 극장**은 춤과 몸짓을 위한 복합공간으로 장르간의 만남과 실험을 통해 공간예술의 새로운 시도를 꾀하고 있다. 젊은 예술가들에게 현실적인 기획을 제시하고 네트워킹을 통한 댄스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⑱ **서울아트마켓**은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재)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매년 10월 개최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연예술 마켓이다. 2005년 창설 이후 예술가, 예술단체 매니저, 극장 프로그래머, 축제 예술 감독, 공연 기획자들이 모여 공연예술의 세계적 경향과 작품 정보를 나눔으로써, 공연예술의 유통과 해외진출의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4년간 약 7천 여명의 국내외 공연예술관계자들이 서울아트마켓에 참여해 왔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그 규모와 프로그램에서 크게 성장하고 있다.



Korean Modern Dance Today

Influence of Martha Graham and Korean Modern Dance

As of 2006, a yearly total of 2,085 dance performances were held in Korea according to the statistics of the Cultural and Artistic Yearbook, with 1,775 performances held in 2007. Among them, modern dance represented 455 performances in 2006 and 349 in 2007. Korean creative dance, based on a traditional dance that is categorized as “Korean dance”, represented 397 performances in 2006 and 152 in 2007. Strictly speaking, however, it should be regarded as “modern dance”, in which case it may be said that some 1,000 modern dance performances are held every year, among which some 45% are performed in Seoul.

Given the size of the country, this is quite an outstanding record, and similar records can only be seen in countries where dance is very popular. Modern dance in Korea is expanding in what can only be described as an extraordinary phenomenon, and some 150 professional dance companies are estimated to comprise this sector.

The background to this can be found in Korea's unique dance environment. The most notable feature is that there are a number of dance departments at universities, in which Korea is second only to the U.S. The first dance department was created at Ewha Womans University in 1963, hailing the beginning of college dance education. Whereas in the U.S. dance education is focused on creative dance, Korean dance education is more focused on the practical training of three major areas: Korean dance, modern dance, and ballet. Although colleges had a virtuous function of fostering and enhancing the social recognition of the dance community, they also had dysfunctions, namely the confusion between dance art, which is the art of dance put on stage, and different types of experts, such as professors, dance scholars, and educators. There was a time for some 30 years when colleges provided essential support to the field, but in today's world of expanding dance performances, there is a gap between professional dance companies and college dance. The history of dance can be periodically divided to before the 1960s, the research institute era, after the 1970s, the college dance era, and after the 2000s, the era of professional dance companies.

Professor [Yuk Wan Sun](#)⁹ of Modern Dance at Ewha University studied at the Martha Graham School at Illinois University, established the Orchesis company modeled after a U.S. university dance company in 1963, and placed a dance performance on stage. In 1975, she set up the

[Korea Contemporary Dance Company](#)⁹ with Ewha graduates. This was the very beginning of the modern dance company in Korea. Before Yuk Wan Sun, Bae Gu-ja, [Choi Seung-hee](#)⁹ and [Jo Taekwon](#)⁹'s new dance, and the works of Jung Mak, Kim Sang-gyu, Song Bum, and Park Oe-sun were influenced by Germany's Mary Wigman's Neue Tanz, which had spread to Korea through Japan. Yuk Wan Sun is a prominent figure in the history of dance, having introduced American-style modern dance to Korea and promoted a new genre to a broader audience. Her active performances developed and advanced, having an impact on other genres of dance, which is why the history of modern dance is said to begin with Yuk Wan Sun.

Her remarkable achievements in producing fellow dancers at Ewha are widely acknowledged. Beginning with the first generation of modern dancers, namely Ha Jung-ae, Lee Jung-hee, [Kim Bok-hee](#)⁹, Kim Hwa-sook and Park Myung-suk who made up a company of women dancers, she also contributed to producing the pivotal figures of today's modern dance, such as Ahn Aesoon and Lee Yun-gyeong. Only ten years ago, Ewha University was coined the “mecca of Korean modern dance”.

The first performance by the Korea Contemporary Dance Company was held in 1975 at the open-theater at the Christian Academy House Palgakjung. The stage was not in a formal theater, marking the start of an epoch-making dance movement that broke away from the fixed concept of what dance was. Working with other artists in music and art, she managed to push the recognition of dance to new, previously unreached heights in Korea.

Visiting foreign dance companies at the time also had a significant influence. The bold expressive techniques of the Roland Petit Ballet Company, the Cologne Ballet Academy, and Tanztheater Wuppertal Pina Bausch, which performed *Fruhlingsopfer* by Stravinsky, stimulated Korea's early modern dancers.

But Yuk Wan Sun's strong adherence to Martha Graham-style abstract dance eventually opened the way to a breakaway from her solo influence. In 1971, Kim Bok-hee and Kim Hwa-suk dance companies incorporated modern dance from the West with traditional Korean dance, pursuing the creation of Korean modern dance. Later, they actively developed Korean themes and dance techniques. Lee Jung-hee managed to bring forth an inner depth that was analogous to Munch's works by blending starkly expressive religious ceremonies, rhythm, and shamanism into her dance pieces. During the early 1980s, Lee Jung-hee created a performance that linked dance and video through *Video and Dance*. Nam Jeong-ho, who had returned from studies in France, exhibited a fast tempo rhythm and merry philosophy in her work, bringing modern art to a world that went beyond conceptual ideas. Having studied at the U.K. Laban Centre for Contemporary Dance, [Choi Chung-ja](#)⁹ paved the way for modern dance with a highly skilled technique based on ballet. If Martha Graham's dance was called modern dance, their dance was in line with the global trends, leading the world in post-modern dance. This was similar to various social aspects of Korea at the time, where American influence was considerable. The

concept of post-modernism, initiated by the Judson Church of the U.S. in the early 1960s, had already seeped into Korean society. [Sin Cha Hong](#)⁷, who was labeled a forward dancer, also played a role in shaping Korea's activities.

Professor Yuk Wan Sun's Martha Graham-style dance, which was created and fostered by the Contemporary Dance Company, underwent intensive revisions with the changing global trends, including the diverging mindset of her students, an aesthetic culture of valuing local characteristics, and the global trend of secession from Americanization. Surprisingly, however, Yuk Wan Sun did not obstinately stick to the Martha Graham-style in her company or world of dance. As only a pioneer could, she was passionately committed to increasing the number of modern dancers, increasing the share of the market rather than aiming only for quality. The establishment of MODAKO (The Contemporary Dance Association of Korea)^{viii}, a small dance movement, hosting dance festivals, and many other efforts to reach global markets through international dance festivals are notable among her many achievements.

Revival of Modern Dance: Post-modern dance of the '80s and '90s

Following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 Contemporary Dance Company up until the late 1990s, some 50 colleges established dance departments, and their professors jointly founded the Dong-in Dance Company. The Korea Dance Festival (today's Seoul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SIDance), established in 1979) was a stage for creative dance supported by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monthly journal *Dance*⁹ (founded in 1976), which produced numbers of dance critics, inspired the creative spirit of dancers and became their social leadership. The Korea Dance Festival and *Dance* were labeled as the two wagon wheels driving the Korean dance world.

The small dance movement first began as Modern Dance Night at Love of Space in 1980, contributing significantly to the diversification of dance. This was the so-called expansion of post-modern dance. The works of the small dance movement emphasized the actual movements of dancers, took an approach to extreme expressiveness, and utilized minimalistic patterns and modern machine-like mechanisms, combining the symbolism and imagery of movement, and focused on the expression of integrating various styles.

"Post-modern", an extremely vague term with a pluralistic definition, is not connected to any specific style, but is understood as a concept of an era that strove to translate it from a civilization perspective. The concept of post-modern dance is also in line with the philosophy or literary theory, which opposed the generalization of the modern world. The basic concept of post-modern dance, as was pointed out by world dance scholars, was generally accepted by

Seoul's modern dancers. Ballet movements, earlier rejected by modern dance, were applied with new meanings. Every physical movement, including walking, became subject matter for dance, and every procedure became a valuable composition tool. This was not based on the principle of Wagner's harmonious total art, where music, costumes, and devices came together, but rather on Brecht's philosophy, which is composed of a more comprehensive theory. Also, it accepts the differing concepts of beauty and ugliness in that all dancers, regardless of their physical conditions, can dance. It is not a performance that integrates contingency, instantaneous impromptu, physical contact, the use of real time during a performance, events, repetition, a collage of every day movements and dance movements, and the restoration of the free mind of Isadora Duncan into dance techniques to overwhelm the audience. Rather, it is a performance style that stands in the shoes of the audience and tries to understand their reality.

The stage for dance performances is not solely the theater. Any venue or place can be transformed into a stage, and the audience is sometimes a part of the dance performance. This goes against the objective of Aristotle's tragedy, which is in the healing of mankind through a catharsis of compassion and fear. It is more focused on an intellectual experimental mind. The value of a dancer who does not dance is tested, and physical expression is deeply utilized through words and sounds. Dance is also used to enlighten people of Korea's political situation. There were performances by dancers that appealed to the public to participate in political upheaval.

The '80s and '90s are referred to as the period of the restoration of modern dance. New information from the U.S. and Europe, and a changing environment, led the way for the spread of modern dance. The distance between Korea and the U.S. and Europe, which influenced Korean modern dance, and Asia and South America, where the culture of modern dance also reached, was reduced, and the composition of dance companies, the structure of theaters, and the operation and program of art festivals became very well organized and systematic, giving modern dance its own true color. In addition, faced with the challenge of creating dance techniques unique to Korean modern dance, Korean dancers found valuable lessons to be learned in the success story of Japan's Buto. They became more active in thinking about the issues of dance movement recognition, dance, play and theater techniques, and dance and philosophy. Hands-on experience and training of dancers, and summons from critics for something new, stimulated a change in these areas. They learned to recognize the fundamental language of dance rather than simply appreciate the physical beauty or figure of dance. Taking advantage of the de-Americanization trend in the world of dance, Korean modern dance became subjected to influences from other countries, namely France and Germany, in the late 1990s. The form and subject matter of dance pieces also changed. The major developments were, namely, the modernization of Korean traditions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social voices of dance pieces. As the recognition of dance philosophy grew stronger, dance grew from simply

International exchange in Korean dance: the Present and Future

Celebrated Pioneers

It has not been long since the Korean dance community opened its eyes to international exchange. Particularly, in terms of exporting Korean dance rather than importing foreign dance, it would be more accurate to say that we are only at the initial stages. It is true that during Korea's annexation by Japan (1910-1945) and after the 1950s, unparalleled dancers such as Seung-Hee Choi (1911-1969) and Taik-Won Cho (1906-1976) showed the unique beauty and choreography of Korean dance to not only the Americas but also Europe. However, the accomplishment of these artists did not rely much on the local dance scene of Korea at that time. Rather, it must be seen as the result solely of the genius or unyielding efforts of individuals.

The very fact that Seung-Hee Choi (otherwise known as Sai Shoki in the West) associated with prominent contemporary figures such as Jean Cocteau or Picasso, that she was a judge at the International Dance Competition in Brussels with Mary Wigman, and that Jo Taekwon held over 500 performances in Paris and the U.S., performed at the Jacobs Pillow Dance Festival and the Brooklyn Academy of Music (BAM), and was a close associate of Ruth Saint Denis, are clearly marvelous for a small Asian country that was colonized or barely de-colonized at a time when international exchange was unimaginable. Yet this case was quite unique.

Apart from these two extraordinary figures, the emergence of Korean dance on the international stage following Korea's liberalization from Japan was mostly limited to folk dance. The emerging Korean dance artists at that time were not independent artists either; they were mostly government-owned dance/performing arts companies or pro-government dance artists.

Therefore, the original creations of Korean dance, in terms of modern/contemporary dance, in greater or lesser degree, can be said to have begun so-called international exchange after the 1980s. After the independence, classical ballet and traditional dance gained greater popularity whereas, comparatively, contemporary Korean dance was regarded rather insignificant. Since the late 1970s, however, western-style contemporary dance and creative Korean dance began to pick up, and the 1980s, often referred to as the era of dance renaissance, saw many

experiments and trials undertaken by the Korean dance community, preparing for a new age. Furthermore, the diversification of overseas dance study destinations from mainly the United States to Europe and other regions also contributed to the globalization of Korean dance.

Western and Japanese contemporary dance, although slowly introduced through small festivals and college dance departments, were not fully active in Korean society, and the number of Korean dance pieces being performed on an international stage was even smaller. With the hosting of the 1988 Seoul Olympics, however, the domestic dance scene eventually became interested in internationalization and globalization, and began to consider a diverse number of ways to enter global markets. The most representative of such companies is the ChangMu Dance Company[®], which took the initiative, strived for creative Korean dance that is influenced by traditional method or traditional dance idioms, and concentrated on the modernization and generalization of Korean dance. It also proved to be the most diligent and effective in moving onto the international arena. Already by the mid-1980s, the ChangMu Dance Company was on a world tour of the U.S., Central America, Europe, and Asia, presenting unique dance pieces to a far wider audience.

Promotion of originality and active international exchange

Various dancers and dance companies tried to aim for the global stage, but such efforts were not always successful. There were mainly two reasons behind this. One reason was that there were not many creative works that confidently met global standards, and secondly, there was little government or private support that could ease the economic burdens of airfares and production costs. Of course, in 1973, the Korean Culture and Arts Foundation (KCAF), (today's Arts Council Korea (ARKO)), was founded to sponsor artists, but it did not place enormous significance on international exchange. At best, it provided support to promising artists that hoped to train abroad. Only 5-6 years ago, the Ministry of Culture and Sports was more interested in supporting the movement of traditional performing arts to international stages rather than that of contemporary performing arts, (the penetration of international markets by traditional dance is still a protected area of support). Another major supporting agency under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the Korea Foundation, only recently began to take an interest in introducing contemporary performing arts to world stages.

But in recent years, the situation has changed dramatically. It would not be an exaggeration to say that Korea's contemporary dance is at a huge transition point. This is because of changes in the above two reasons; in other words, the government's perspective on supporting contemporary dance has not only changed, but the originality of choreographers has improved

remarkably compared to that of the past. Whereas, previously, only mediocre Korean pieces participated in small foreign events, today a totally different phenomenon can be witnessed. The main players who promoted international exchange are promising and well-experienced dancers in their 30s and 40s.

Channels and Networking

Today, international dance scene can exchange with Korean dance in a range of ways. In the past, large venues and performing arts organizations, such as the Sejong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or Seoul Arts Center, or media groups were the major hosts able to invite international dance companies to perform in Korea. An exchange on a more professional level would be a workshop for dancers through coordination with college dance departments or holding a performance at a school, and the emergence of small-size dance events inviting foreign dance companies to the Korean stage was all there actually was.

With the creation of proper dance festivals in the late 1990s and early 2000s, however, and the construction of new venues in better conditions in Seoul and other regions, the situation began to change rapidly. Among the most distinguished of such festivals is the Seoul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SIDance.

SIDance was established upon the hosting of the 13th CID-UNESCO® (Conseil International de la Danse or International Dance Council) General Assembly by the Korea Chapter of CID-UNESCO in October 1998, introducing new international trends to Korea, and vice versa, and with a goal of enhancing social recognition of dance, a genre to which only a small portion of the general public could relate. Considered to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dance festivals in Korea in terms of size and quality, SIDance concentrates particularly on international exchange. It has undertaken more than twenty international collaborations, (co-productions, co-commissions, and exchanges between dancers and choreographers). The Korea Chapter of CID-UNESCO, now renamed as Seoul Section of the International Dance Council CID-UNESCO, is not only in charge of hosting SIDance, but also acts as the Korean office for the Prix de Lausanne, introduces Korean traditional and contemporary dance to international audiences, and conducts various dance-related activities, including academic seminars. The organization has also been active in hosting the 6-month dance residency program for multi-national dance collaborations called Asia-Africa/Asia-Central America Dance Exchange, supported by the Cultural Partnership Initiative program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is program has been on-going for 3 years to date.

The transformation of the International Modern Dance Festival (MODAFE)® should also be noted. Starting out in the mid-1980s, it set the stage for domestic dancers to present their creative work, and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contemporary dance. It also invited overseas dance companies to Korea from time to time, but the vitalization of Korean contemporary dance and diversification in the Korean dance scene in general led to a comparative weakening of its position. Yet the host of this festival, MODAKO(Contemporary Dance Association of Korea), began to transform after being provided a significant amount of government support in 2003, and today, it is growing into an event that reflects the latest trends in international contemporary dance scene.

The Seoul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SPAF)®, a comprehensive performing arts festival, is a valuable complement to the field of dance. This festival was originally created to embrace theater, dance, and music, but in reality, its program is mainly composed of theater pieces and dance performances, with the dance proportion continuing to increase.

Outside of Seoul, the Busan International Summer Dance Festival, which hosted its 22nd event this year, proudly boasts of the longest history. What is most characteristic of this festival is that the Department of Dance of a certain university (Kyungsung University) has consistently been the host. Although it does not have a large budget, its program is a diverse composition of local/international performances, workshops, master classes and seminars. A dance company seeking to put on a small performance would be recommended to contact this festival. Commemorating its 5th year this year, the Busan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has a greater budget and has expanded in size, but the hosts are still undecided on clarifying the qualities and direction of the festival. The ChangMu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which has a history of more than 20 years, is trying to expand its scope from that of the past where it simply focused on introducing Asian dance. Although there are many other dance festivals, including the Daegu International Modern Dance Festival, Andong International Modern Dance Festival, and Cheonan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some have closed down due to financial difficulties.

However, apart from festivals, international exchange is barely carried out by large venues or performing arts centers. International dance companies are invited by these venues or centers and, at most, just be “accessories” of the event. In this context, the existence of a small but exclusive dance theater, M Theater®, is quite exceptional, as it sets the stage for rising young dancers and experienced dancers in Korea, while it also pursues international exchange by inviting producers from other countries.

The Performing Arts Market in Seoul (PAMS)®, established in 2005, is adding valuable assistance to such recent efforts by the dance industry. This is an annual event largely supported by the government, after the relentless lobbying by the performing arts industry in pursuit of a market where Korean dance, theater, and music can be introduced to foreign producers in partnership with SIDance for dance and SPAF for theater. It does not just handle

Korean performances as mere “products” but goes beyond to introduce foreign companies and organizations to the Korean market. The greatest beneficiary is the field of music, but dance is also receiving direct and indirect assistance from PAMS.

Today’s Korean dance industry is, literally, in the process of making a great leap based on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growth. In this regard, it would be a good opportunity for the international dance society to promote exchange with Korea. Going forward, however, there still are concerns; Korea does not yet have a proper government or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 to institutionally and administratively lead the creation, distribution, popularization, and training required to achieve fully fledged international exchanges in the field of dance. These concerns, I believe, will alarm us for the better future of Korean dance.

LEE Jong-Ho established Seoul Section of the International Dance Council CID-UNESCO (Conseil International de la Danse) in 1996. His tireless devotion to this group led the success of the 13th CID-UNESCO General Assembly held in Seoul in 1998. Its related event, SIDance (Seoul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has been an annual event ever since, held every autumn. He has also dedicated himself to dance writing as a dance critic since the early 80s, as well as made a continuous commitment to publicizing and developing Korean dance scene by working as a journalist at Yonhap News Agency for over 30 years. In 2004 he became an executive council member of AAPAF (Association of Asian Performing Arts Festivals) as an artistic director of SIDance.



LEE Jong-Ho established Seoul Section of the International Dance Council CID-UNESCO (Conseil International de la Danse) in 1996. His tireless devotion to this group led the success of the 13th CID-UNESCO General Assembly held in Seoul in 1998. Its related event, SIDance (Seoul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has been an annual event ever since, held every autumn. He has also dedicated himself to dance writing as a dance critic since the early 80s, as well as made a continuous commitment to publicizing and developing Korean dance scene by working as a journalist at Yonhap News Agency for over 30 years. In 2004 he became an executive council member of AAPAF (Association of Asian Performing Arts Festivals) as an artistic director of SIDance.

- ① **YUK Wan Sun** (1933~) is a modern dance teacher formerly affiliated with Ewha Women's University and the woman largely responsible for the beginning of modern dance in Korea. After studied in the University of Illinois and the Martha Graham School of Contemporary Dance, she introduced American modern dance to Korea for the first time. Her performance and articles provided foreground for the modern dance education in Korea.
- ② **Korea Contemporary Dance Company**, established by Yuk Wan Sun in 1975 and noted as the beginning of the Korea modern dance groups, was a stepping stone for a considerable number of dancers that constructed the world of modern dance in Korea.
- ③ **CHOI Seung-hee** (1911-1969) was a leading Korean modern dancer. She developed her own modern dances inspired by Korean folk dances, which had been considered as lowly works. She was supported by Japanese intellectuals including Yasunari Kawabata, and corresponded with both Jean Cocteau and Pablo Picasso.
- ④ Inspired and taught by the modern dancer Baku Ishii, **JO Taekwon** studied dance in Japan and France in 1930's. Acclaimed as one of the two top Korean dancers under Japanese occupation together with Choi Seung-hee, he introduced the concept of dance drama for the first time to Korea. After his performance in USA and France supported by Ruth St. Denis and UNESCO, he has accomplished more than 500 performances around the world.
- ⑤ **KIM Bok-hee** studied under Yuk Wan Sun at Ewha, but separated from Yuk's school of modern dance upon graduation. With her debut work Poetry of Rapture, a piece strong with Buddhist culture, she translated traditional Korean culture into modern dance. Her works are based on Korean folktales and Buddhist stories, and themes such as the perfection of the self, emancipation and transmigrationism are incorporated into her dance pieces.
- ⑥ Having studied at the Laban Centre for Movement and Dance at Goldsmiths College in the U.K., instead of the Martha Graham Centre of Contemporary Dance in the U.S., **CHOI Chung-ja** was deeply influenced by the originality and principle of movement of Rudolf von Laban. She strived to sensually stimulate her audience through her works, and at the same time, express the free and progressive originality of modern dance. An outstanding figure in both her originality and dance education, she also served as the Chairperson of MODAKO.
- ⑦ **Sin Cha HONG**, one of Korea's advanced dancers, recreated philosophical themes, such as emancipation and philosophical ripeness with her dance works. After joining the Nicolai Dance Company, she continued her masters in Columbia University and New York University, and trained in numerous dance studios. She trained in meditation for three years in India since 1976 under Rajneesh Chandra Mohan Jain and Nisargadatta Maharaj, and learned Indian dance and music from Indian artists.
- ⑧ Established in 1980, the **Contemporary Dance Association of Korea (MODACO)**, is involved in diverse fields, including production and research, education, nurturing of new dancers, publication, international exchange and consulting, and hosting of various events, namely the International Modern Dance Festival (MODAFE), MODACO Concours, and the “Saeng Saeng” Dance Festival.
- ⑨ **Founded** in 1976, **Dance** is a monthly periodical journal that opened the door for dance critique in Korea. Most of today's dance critics entered the field through Dance. The journal not only reports on the world of international dance, but is committed to the preservation of dance material and records, and exchange with arts closely linked to the field of dance.
- ⑩ Through the development of new movements, a common feature in his works, **Hong Sungyop** pursues the harmony of the appropriate allocation of space on the stage, music and lighting. Also, he undertakes many experiments, such as conveying a message to the audience by using props or sets in the latter half of his piece. With the establishment of Dance Theater ON, he continues to develop a composition of new movements through the utilization of Mise en scene, while integrating his works with various genres in art.

-
- 11 As the initiator of the Bongsan Mask Dance Drama, which is designated as the No. 17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of Korea, **Park Hobin** performed with prominent domestic dance companies before establishing the Dance Theater Ccadoo, a modern dance company, in 2004. Aiming towards both artistry and popularity, he incorporates video, music and costumes into his dance pieces, and utilizes modern civilization, human nature and social relations as his main motifs.
 - 12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is an academic institution established by the Korean government to nurture artists. **The School of Dance at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has produced numerous award winning dancers in famous competitions home and abroad, and even more number of professional dancers.
 - 13 **ChangMu Dance Company** was founded in 1976 by dancer Kim Mae-Ja who aspired to create modern dance based on traditional Korean dance. She expanded the scope of Korean modern dance into a crossover between dance and related arts fields, and is active on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ages.
 - 14 **The International Dance Council (CID: Conseil International de la Danse)** is an umbrella organization for all forms of dance in the world. It is a non-profit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founded in 1973 within the UNESCO headquarters.
 - 15 Since its foundation in 1982, **MODAFE (International Modern Dance Festival)** has been presenting performances from almost 100 foreign dance organizations and 300 Korean dance companies hitherto, securing its position as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modern dance festivals in Korea.
 - 16 **The Seoul Performing Arts Festival (SPAF)**, Korea's most noted performing arts festival which commenced in 2001, embraces all genres in performing arts, and also acts as an international trade fair. It is held between October and November every year, and introduced 40 works from 12 different countries in 2009.
 - 17 An arts complex for dance and movement, **M Theater** strives to experiment the new in space arts through interaction between different genres. Its objective is to provide practical projects to young artists, and become a networking platform for dance.
 - 18 **The Performing Arts Market in Seoul (PAMS)** is an annual event organized by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s, with support from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which aims to strengthen public awareness of performing arts and increase the presence of Korean performing arts and artists overseas. Since its foundation in 2005, PAMS has established itself as a primary venue for the exchange of ideas, trends and issues, facilitating free and open communication among artists and professionals who share an interest in the performing arts. Over past four years, approximately 7,000 domestic and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professionals have taken part in PAMS, including major performing arts theaters and event organizations from around the world.



Estado atual da dança contemporânea coreana

A influência de Martha Graham e a dança contemporânea coreana

Desde 2006, um total de 2.085 apresentações de dança acontecem todos os anos na Coreia: (em 2007, 1775 apresentações, Estatísticas do Anuário Artístico e Cultural). Entre estes, a dança contemporânea ocupa 445 apresentações em 2006 e, em 2007, 349. As apresentações da dança criativa coreana baseada em dança tradicional são realizadas 397 vezes em 2006 e 152 vezes em 2007, porque este tipo de dança é classificada como dança contemporânea, onde as apresentações desta, por sua vez, são mostradas 1000 vezes por ano. A cidade de Seul representa 45% da ocupação.

Coreia é um dos principais países onde muitos espetáculos de dança contemporânea acontecem. O crescimento da dança desta categoria é tanto, até sendo chamado um fenômeno extraordinário. E ainda stima-se que cerca de 150 grupos profissionais de dança contemporânea existem.

Isto é devido a uma atmosfera de dança especial e, especialmente, há muitos departamentos de dança nas universidades. Coreia do Sul é o segundo país seguido dos E.U.A. quando se trata do número de departamentos de dança nas universidades. A educação universitária de dança começou em 1963 na Universidade Ewha Mulher. A educação de dança nos E.U.A. concentra-se na criação de dança, enquanto a educação coreana se concentram, apenas, em dança coreana, dança moderna e balé, assim aderendo uma educação prática dita trifásica. As universidades assumiam uma função essencial de elevar o status social da dança e faz a sociedade de dança crescer, mas também causava uma confusão entre professores universitárias, pesquisadores e educadores de dança. Nas últimas três décadas, houve uma grande necessidade pelo patrocínio das universidades. Porém, mostra também um fenômeno onde mostra uma alienação entre atividade em grupo de dançarinos(as) profissionais e a dança universitárias, num período de expansão da dança contemporânea como este. Isso pode ser classificado entre três períodos: até década de 60, idade de institutos de pesquisa; após década de 70, de dança universitária; e após 2000, de grupos profissionais de dança.

Yuk Wansun, professora de dança contemporânea da Universidade Ewha, estudou na

Universidade de Illinois e Martha Graham School e estabeleceu Orchesis grupo de Dança em 1963 inspirado nos grupos de dança das universidades americanas. Ela criou o Grupo de Dança Contemporânea Coreana em 1975, com graduados de Ewha. Este é o início das atividades dos grupos de dança contemporânea. Antes de Yuk Wansun, a nova dança de Bae Gu-ja, Choi Seung-hee e Jo Taekwon, bem como de Jung Mak, Kim Sang-gyu, Song Bum e Park Oe-sun foi batizada por Neue Tanz, da alemã Marie Wigman, que foi transmitido do Japão. A posição histórica de Yuk é importante pois ela foi quem introduziu a dança contemporânea americana na Coreia. Devido a sua carreira ativa influenciar outros gêneros da dança, ela é, às vezes, chamada como um divisor de águas da história da dança moderna na Coreia.

Ela criou muitas dançarinas, além das dançarinas da 1ª geração da dança contemporânea como Ha Jung-ae, Lee Jung-hee, Kim Bok-hee, Kim Hwa-sook e Park Myung-suk, também An Aesun e Yi Yungyeong, que são consideradas como uma espinha dorsal da dança contemporânea na Coreia. Cerca de 10 anos atrás, a Universidade Feminina Ewha foi chamada como uma meca da dança contemporânea coreana.

Em 1975, ela mostrou primeira apresentação do Grupo Contemporâneo da Coreia na Casa Octágono da Academia Cristã, onde não é um teatro formal mas um em ambiente aberto. Esse foi o início do movimento de dança inovadora. Ela levantou o baixo status da dança através de actividades conjuntas com outros artistas como músicos e artistas plásticas.

A influência dos grupos de dança que visitaram a Coreia foi grande, também: Roland Petit Balé Company, Grupo de Balé da Colônia e Pina Bausch que apresentou Sagração da Primavera de Stravinsky.

No entanto, a dança surreal do estilo de Martha Graham e seu domínio, dirigido por Yuk Wansun do Grupo de Dança Contemporânea, causou uma ramificação, naturalmente. Em 1971, o Grupo de Dança de Kim Bok-hee e Kim Hwa-suk estava disposto para desenvolver um estilo novo de dança coreana em que a dança tradicional coreana e a moderna ocidental se harmonizam entre si. Lee Jung-hee procurou rituais e movimentos com forte expressão e xamanismo e procurou mostrar a profundidade do interior humano que se lembra do quadro de Munch. No início de 1980, ela já mostrou o trabalho chamado 'Vídeo e Dança', onde a dança e o vídeo são misturados. Nam Jeongho, voltando da França, levantou a dança contemporânea a um mundo além do idealismo, mostrando uma beleza rítmica com tempo rápido. Choi Chung-ja, formada pelo Laban Centre for Contemporary Dance, abriu um novo mundo da dança moderna com técnicas de alto nível, baseado no balé. Estas dançarinas abriu um mundo da dança pós-moderna, enquanto Martha Graham estabeleceu a dança moderna. Este é o reflexo do fato de que a sociedade coreana é dependente da cultura americana. Isto significa que o conceito pós-moderno da Judson Church já fora introduzido. Sin Cha Hong, dita uma dançarina avant-garde, também desempenhou um papel importante.

O estilo de Martha Graham de Yuk Wansun, que cresceu a partir do grupo de dança

contemporânea, está recebendo nova consideração no lado de intercâmbio com tendência internacional anti-estilo americano e de beleza da identificação do estilo coreano. Yuk Wansun, especialmente, não apenas mostrou sua obsessão ao estilo de Martha Graham em sua organização ou em seu mundo de dança. Mas sendo pioneira, dedicou-se à expansão quantitativa da dança, em vez de desenvolvimento qualitativo, porque seu objetivo foi a introdução da dança contemporânea na sociedade e expansão daquela. Suas realizações incluem a criação da associação de dança contemporânea, o movimento da dança-teatro de pequeno porte, a abertura do festival de dança e a globalização da dança coreana através de festival de dança internacional.

Renascimento da dança contemporânea: a dança pós-moderna entre décadas 1980 e 90

Após a criação do grupo de dança coreana contemporânea, muitos departamentos de dança foram criados, nas cerca de 50 universidades. Korea Dance Festival, um festival de dança criativa patrocinado pelo governo (agora Seoul Dance Festival, criada em 1979), e a revista mensal Chum (publicada pela primeira vez em 1976), que produziu críticos de dança, assumiu função de levantar espírito criativo. Korea Dance Festival e Chum foram até chamados como as rodas do vagão da dança na Coreia.

O Movimento de Teatros de Pequeno Porte, que começou com "Noite da Dança Contemporânea", num teatro chamado Gonggan Sarang em 1980, contribuiu para a diversificação da dança. Esta é a chamada expansão da dança pós-moderna. A tendência de obras para pequenos teatros é caracterizada por diversos aspectos, tais como a ênfase na ação da própria dançarina, a abordagem da expressividade, o uso do padrão minimalista, o uso do mecanismo moderno, a combinação de símbolo e imagem de ação e a expressão geral de estilos diversos combinados.

O pós-modernismo é entendido como um novo conceito definido pela história, que não se associa com qualquer estilo já existente, devido à sua polissemia e ambigüidade. A dança pós-moderna está também em consonância com a filosofia e teoria literária contra a padronização do mundo. O conceito básico apontado por pesquisadores internacionais de dança foi aceito por dançarinos contemporâneos em Seul. Para as ações de balé rejeitadas pela dança contemporânea, é dado um novo significado; e qualquer movimento pode ser um assunto de dança e qualquer ação tem seu próprio valor, que se baseia na alienação de Brecht, ao invés de Gesamtkunstwerk de Wagner em que a música, trajes e equipamentos são amalgamados. Além disso, este aceita a modernidade, onde o conceito de beleza e fealdade é revertida pelo qual qualquer dançarino de qualquer condição física pode dançar. Os métodos de dança como eventualidade, ação

improvisada, contato físico, uso do tempo real do desempenho, acontecimento, repetição, colagem de ação normal e dança e restauração do espírito de liberdade de Isadora Duncan mostra e resolve a realidade no lugar dos expectadores, invés de governar sobre eles.

Qualquer lugar pode ser usado como um lugar para apresentação de dança e o público, às vezes faz parte da apresentação. Isto é baseado no espírito experimental intelectual em contradição da teoria aristoteliana, que se diz que a finalidade da tragédia é curar ser humano, provocando catarse através de compaixão e de medo. Eles experimentam a eficácia dos dançarinos que não dançam e das expressões corporais como fala ou som. A dança é também utilizada para esclarecer a situação política da Coreia. Já houve um grupo de dançarinas que se apelavam para participação política.

As décadas de 80 e 90 são chamadas como período de renascimento da dança contemporânea. Novas informações vindas dos Estados Unidos e da Europa ajudaram a moldar novas formas de dança. A distância dos Estados Unidos e da Europa para a dança coreana foi encurtada e, além disso, a Ásia e América Latina, os continentes que se influenciaram deles, nos aproximaram-se bastante. A administração e os programas de vários festivais de arte tornaram-se sistemáticos, para que a dança contemporânea tem sua própria cor. Além disso, o sucesso do Buto japonês serviu como um grande exemplo para dançarinos coreano que se preocupavam com o desenvolvimento da dança criativa do estilo coreano. Os dançarinos começaram a se preocupar com problema de reconhecimento dos movimentos, problemas em dança, teatro e técnicas de teatro e problema da dança e seu ponto de vista. A posição das dançarinas sobre reconhecimento sobre movimento e dança, teatro e arte teatral muda bastante devido à solicitação sobre novidades dos críticos e educação experimental. Começam a reconhecer as palavras da dança, além das belezas formais. A partir da segunda metade da década de 1990, a influência da França e da Alemanha tornou-se maior devido ao desvio da influência norte-americana no cenário da dança mundial. A tendência sobre formalidade nos trabalhos veio sendo mudado e, portanto, o temático dos trabalhos também se influenciou daquela. Em geral, podemos citar a modernização da tradição coreana e do aumento da influência social de dança. Com a fortificação do reconhecimento da definição da dança, esta se transformou em uma atividade prática com sua própria auto-consciência e definição, desviando-se da beleza simples. Assim, a dança contemporânea rejeita o princípio de técnica de dança padronizada porque a filosofia estética do autor é mais importante que a técnica de expressão. A demanda é inserir reconhecimento e ponto de vista mais variados.

Profissionalização dos dançarinos contemporâneos e apoio intensivo para coreógrafos

Nos anos 2000, a sociedade de dança, com a revolução na vida com a introdução da era Internet, tomou ela como um elemento positivo e aceitou no palco. Dança coreana mudou drasticamente devido à expansão do espaço, utilização dos diversos meios de comunicação, combinação de tecnologia e de dança, busca de símbolo coreano e feminilidade, interpretação da religião através da dança, sublimação da emoção coreano, busca da identidade, etc. A tricotomia de gêneros de dança, como dança coreana, balé e dança contemporânea, começou a desaparecer e, a sociedade da dança centrado em torno das universidades, também começou a ser destruída. A geração chamada grupo de dança independente começou a aparecer devido à tendência para romper dos grupos específicos ou regiões. Sobretudo, a geração de dança independente que surgiu em 1990, é a evidência da evolução da panorama da dança na década de 1990. A dança independente, como seu próprio nome se propõe, deve significar um arte de dança livre das interferências e capitais artísticas e não artística. Mas, na área de dança, esta palavra significa mais os profissionais ou grupos que preferem uma atividade mais independente da área clássica de dança. A dança independente deve ser interpretada como uma parte da diversificação que aconteceu em 90, no cenário da dança. Em particular, podemos destacar os dançarinos jovens que se fugiram dos quadros de dança da universidade. An Aesun, Hong Seungyeop e Bak Hobin estão conduzindo os grupos de dança independentes relativamente bem desenvolvidos.

A Escola Nacional de Dança, com dez anos de história, produziu muitos dançarinos capazes. Estes dançarinos com capacidade excelente tem contribuída para as atividades de dançarinos independentes e Universidade Ewha, meca da dança contemporânea, por sua vez, perdeu sua fama. Os dançarinos coreanos são reconhecidas em todo o mundo por sua capacidade extraordinária, e eles são dispensados do serviço militar, ganhando um concurso. Apesar da habilidade dos dançarinos coreanos é forte, sua originalidade é fraca. O apoio do governo não é tão baixo, mas ainda não conseguiu um sistema contínuo. Em especial, salienta-se que a dança contemporânea não fez nenhum progresso quando se trata de fazer a profissão. Este ano, o governo anunciou que um grupo nacional de dança contemporânea seria criado em Seul pela primeira vez. Existem 26 grupos de dança nacionais ou municipais de âmbito nacional, mas todos eles são grupos de dança tradicional coreana. Os coreógrafos capazes devem ser apoiados de uma forma contínua e deve surgir mais grupos de dança contemporânea profissionais.



KIM YoungAe: Foi editor da revista mensal Hanguk Yeongeuk (Teatro coreano) e planejador do teatro nacional e também editor da revista mensal Chum (Dança). Era um membro do corpo editorial da International Dictionary of Modern Dance publicado pela Gale Research, presidente da Associação coreana de críticos de dança, planejador de Arte-Co Theater. Atualmente, é editor da revista mensal Dance Forum e consultor do grupo de baé nacional e grupo de dança nacional. Também é um crítico de dança e professor de Arts Graduate School da Universidade Chungang.



O estado actual e as perspectivas de intercâmbio internacional na cena de dança coreana

Pioneiros extraordinários

É recente que a dança coreana se iniciou a realizar intercâmbios internacionais. Especialmente, quando se trata da exportação de dança coreana, mas não importação da dança internacional, está apenas numa fase internacional. Também é verdade que os dançarinos incomparável como Choi Seung-hee (1911-1969) e Cho Won-Taik (1906-1976) já obtiveram sua fama não só na Ásia, mas também na Europa e Américas, na época quando a Coreia ainda era colônia japonesa. Mas não foi o produto da capacidade nacional de dançarinos coreanos em si, mas apenas o produto da sua genialidade e esforços contínuos individuais.

Potanto, temos de prestar atenção ao fato de que Choi Seung-hee (conhecida como Sai Shoki baseada na pronúncia japonês nos países ocidentais) fez contato com maestros como Jean Cocteau e Picasso, e ela também foi uma juíza, juntamente com Mary Wigman, em concurso de dança internacional realizado em Bruxelas; Cho Won-Taik, por sua vez, realizou mais de 5.000 apresentações de dança na França e na América Latina e também se apresentou no Jacobs Pillow Dance Festival e Brooklyn Academy of Music, mantendo um contacto estreito com Ruth Saint Denis. Foi muito extraordinário, porque a Coreia foi uma colônia do império japonês ou era apenas um país pequeno recém-nascido. Considerando esse fato, não foi um fenômeno geral.

Com exceção dessas duas pessoas extraordinárias, o contato da dança coreana com cena da dança internacional era geralmente limitado a dança tradicional coreano. Além disso, a maioria dos contatos foi feita apenas entre os grupos nacionais, tais como grupo governamental de dança ou grupo artístico do governo, ao vez dos artistas privados.

Foi só depois de 1980, que os grupos de dança contemporânea criativa conseguiu a se estabelecer e começou intercâmbios internacionais. Após a independência contra domínio japonês, balé clássico e dança tradicional coreano foram principais danças na Coreia, de modo que o poder criativo da dança (dança contemporânea num sentido amplo) foi muito ligeiro. A

partir da segunda metade da década de 1970, a dança ocidental contemporânea e dança coreana criativa se expandiram e ativaram. E 1980 é chamado o renascimento da dança na Coreia, preparando uma base para nova era da dança coreana, com vários experimentos e tentativas. Além disso, embora o destino de estudo no exterior até o momento foi, na maioria das vezes, os Estados Unidos, mas isso começou a ser diversificada, incluindo outras regiões como a Europa, assim deixando a cena de dança coreana tornou-se mais internacional.

No entanto, apesar das danças contemporâneas ocidental e japonês serem introduzidas pouco a pouco, através de festivais e pequenos departamentos de dança nas universidades, a introdução de trabalhos de dança coreana em países estrangeiros era rara. O mundo da dança começou a prestar atenção à globalização ou internacionalização após os Jogos Olímpicos de Seul, em 1988, e o grupo de dança mais notável foi Changmu Dance Company. Dedicaram à modernização e globalização da dança coreana expressando dança criativa coreana baseada na tradição. Ainda estavam mais diligente e eficaz para entrar no cenário internacional. O grupo de dança já mostrou suas próprias obras a partir de meados da década de 1980 nos E.U.A., América Central, Europa e Ásia.

Aumento da criatividade e intercâmbios internacionais

Após disso, muitos dançarinos e grupos de dança fizeram um esforço para entrar no cenário internacional, mas não sempre tiveram bons resultados. Isso é, principalmente, devido a duas razões, basicamente: em primeiro lugar, não houve muitas obras no nível internacional para poder funcionar no cenário internacional; e, em segundo, não houve apoios suficientes pelo governo ou pelas empresas para aliviar problemas econômicos. Em 1973, a Korean Culture and Arts Foundation (KCAF) (atualmente Arts Council Korea [ARKO]) foi fundada para apoiar artistas, mas esta organização não colocou um grande peso sobre o intercâmbio internacional. O governo apenas tem suportado jovens artistas que queriam estudar no exterior. 5-6 anos atrás, Ministério da Cultura e de Turismo não mostrava interesse no apoio à globalização da arte moderna coreana, apenas focalizando nas artes tradicionais (Ministério ainda apoiando, ativamente, as artes tradicionais). Recentemente, Fundação Coreia do Ministério dos Exteriores começou a mostrar interesse na globalização da dança contemporânea coreana.

No entanto, esta situação mudou drasticamente nos últimos anos. Não é exagero dizer que este é um ponto crucial da dança coreana. A razão é que o governo começou a apoiar a dança moderna de uma maneira diferente e a criatividade dos coreógrafos melhorou muito. No ano passado, apenas as danças coreanas de nível médio foram introduzidas em países estrangeiros, mas agora a situação é muito diferente do passado. As pessoas que lideram o

intercâmbio internacional são geralmente jovens e artistas de meia-idade.

Canais e redes

Há maneiras mais diversificadas para os dançarinos estrangeiros entrarem em contato com os dançarinos coreanos, se compararmos com o passado. Anteriormente, apenas as grandes instituições, como Sejong Centro de Artes Cênicas e Centro Artístico de Seul ou empresas de mídia convidavam grupos de dança estrangeiras. Houve apenas algumas oficinas de dança profissional através do intercâmbio com as universidades no âmbito profissionais ou pequenas apresentações nos eventos menores, convidando os grupos estrangeiros.

Mas esta situação mudou drasticamente quando aconteceu muitos festivais de dança e muitos centros de artes do espetáculo foram construídas em Seul e em outras regiões. Especialmente, podemos citar o início de SIDance, Seul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A agência coreana de CID-UNESCO conduziu o 3º Congresso Mundial de CID UNESCO, em 10 de 1998, e SIDance foi criado para apresentar as tendências da dança internacional na Coreia e dança coreana para o cenário mundial, levantando a popularidade da dança, a qual é uma área de arte com reputação fraca. Este festival foi reconhecido como um dos mais importantes eventos de dança na Coreia pela sua dimensão e qualidade, no ponto de vista de intercâmbio internacional. Até agora, existem mais de 20 parcerias internacionais (co-produção, comissão conjunta, intercâmbio de recursos humanos, etc.) Além de SIDance, a agência coreana de CID está realizando diversas atividades relacionadas à dança, tais como assumir função do gabinete de comunicação da Coreia para Prix de Lausanne, globalização da dança tradicional coreano e dança contemporânea e atividades acadêmicas.

É imprescindível a transformação do Modafe, International Modern Dance Festival, também. Este evento começou, originalmente, em meados 1980 e os coreógrafos coreano utilizaram-no como uma fase de apresentação de trabalhos criativos, contribuindo para o desenvolvimento da dança contemporânea coreana. Mas com o passar de tempo, o eixo central do desenvolvimento da dança coreana foi diversificando e o evento foi perdendo sua popularidade. Apesar disso, a organizadora do festival, a Associação de Dança Contemporânea Coreana, obteve um apoio governamental, em 200x, fazendo o evento crescer com reflexão das novas tendências da dança contemporânea internacional.

SPAF, Seoul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que incorpora as artes em geral, está reforçando a parte da dança. Este evento foi feita para abranger teatro, dança e música, mas na verdade o teatro e a dança são os programas principais e o peso da dança está se tornando cada vez maior.

Busan International Summer Dance Festival, acontecendo há 22 anos, tem uma tradição mais antiga na área fora de Seul. Este evento vem sendo organizado pelo Departamento de Dança da Universidade Kyungsung. Embora com um orçamento limitado, o festival inclui vários programas, tais como performances tanto interior e exterior, workshops e seminários. Os grupos estrangeiros de dança que querem fazer pequenas performances podem entrar em contato. Busan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há 5 anos de história, com um orçamento e escala maior, possui um porte grande, mas a orientação e identidade do evento ainda não parecem claras. Changmu Festival Internacional de Artes, com 20 anos de existência, está ampliando seus limites para não apenas introduzir danças asiáticas. Além disso, existem muitos festivais, tais como Daegu International Modern Dance Festival, International Andong Modern Dance Festival e International Cheonan Modern Dance Festival, mas alguns deles foram interrompidos devido à falta de orçamento.

Exceto festivais, quase não há intercâmbio entre centros ou teatros. Somente alguns dançarinos estrangeiros estão convidados. Neste sentido, a presença de teatro M é excepcional, porque o teatro tenta fazer intercâmbios internacionais convidando agências estrangeiras e preparando os dançarinos coreano para fazerem apresentações.

PAMS, Performing Arts Market, em Seul, que começou em 2005, é uma grande ajuda para os dançarinos coreanos. Este evento anual nasceu depois que o governo aceitou a persuasão do mundo da arte, enfatizando a necessidade do mercado. Com parceria como SIDance e SPAF, este evento apresenta dança coreana, teatro, música e etc. para agências estrangeiras e, isso não é somente uma introdução de produtos artísticos da Coreia, mas também das instituições estrangeiras. Os músicos estão recebendo este benefício, mas a maioria dos dançarinos também estão recebendo ajuda de PAMS.

Atualmente, a cena de dança da Coreia está, literalmente, num trampolim baseado no crescimento quantitativo e qualitativo. Neste sentido, a cena de dança internacional pode considerar o contato com a cena de dança da Coreia. Receio que o problema do fato de não existir nenhuma organização política ou prática do governo para apoiar a criação, distribuição, divulgação e educação para intercâmbio internacional no âmbito da dança seja levantado num futuro não tão distante.



Lee Jong-ho estabeleceu a Seção Seul do Conselho Internacional de Dança CID (Conseil International de la Danse) em 1996. Sua dedicação incansável para este grupo levou o sucesso do 13º Assembléia Geral de UNESCO-CID, realizada em Seul, em 1998. E seu evento relacionado, SIDance (Seul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foi um evento anual desde então, realizada a cada outono. Em 2004 ele se tornou um membro do Conselho Executivo da AAPAF (Associação de Festivais Asiáticos Performing Arts) como diretor artístico da SIDance

단체공연소개

Participating Dance Companies Companhias de dança



Lee Tae - sang D.T.1. - "The Dog Floating in the Sky"

Nuvem, que desaparece com apenas um sopro de vento...

"The Dog Floating in the Sky" é uma sátira dos sonhos e da inveja humana, onde a movimentação da dança tradicional coreana é transformada em meio a imagens de céu e nuvens. A linda nuvem no céu me parece um cachorro. Aquela nuvem que flutua parece mesmo um cachorro ou apenas eu a vejo como um cachorro? De qualquer maneira, a nuvem desaparece com apenas um sopro de vento. Uma tentativa de imaginar o céu e as nuvens como elementos de composição.

LEE Tae-sang - reconhecido por seus movimentos leves e precisos, seu trabalho aparece na cena contemporânea coreana com frescor e beleza formal através de estruturas coreográficas que primam pela simplicidade em uma movimentação autoral.

이태상 D.T.1

이태상은 동아무용콩쿠르, 신인무용콩쿠르를 비롯하여 전국대학무용콩쿠르 안무상, 대상을 섭렵하며 우수한 실력을 알리기 시작했다. 독일, 헝가리, 오스트리아 등 역량을 있는 국제 댄스 페스티벌에 참가하면서 뛰어난 표현력, 국제적 감각을 익혀 온 그는 2005년 프랑스 르와요몽 재단이 주최하는 '세계 젊은 안무가 워크숍' 참가자로 선발, 뉴욕에서 가장 큰 예술 행사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국제 덤보 아트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등 그 역량을 과시하며 국제무대에서 또한 실력을 인정받았다.

LEE Tae-sang is a man of solid technical foundation and outstanding expressive movements, and now the Korean dance scene is taking notice of him. LEE has been acknowledged as a dancer with soft and sharp movements pitched with his own tenacity. Since his debut as a choreographer with the work 「Moon's Flow」, he has shown his own characteristics and directivity through his works. Awarded the prize for best choreographer at the 8th Dance Festival for the Critic's Choice of Artists, his unique movement and wit, pursuing strong beauty of form through simple structure, has been highly acclaimed by critics. Calm but unprecedented and unexpected, his choreographic style has been praised for its freshness.



Sungsoo Ahn Pick-up Group - "Mating Dance"

Sungsoo Ahn fez oito diferentes versões de coreografias com o Bolero de Ravel nos últimos dez anos, sendo o espetáculo "Bolero" o trabalho mais popular dançado pela companhia de Sungsoo Ahn. "Mating Dance" é a versão de "Bolero" de 2009; brilhante e colorida, a coreografia propõe estimular olhos e ouvidos do público.

Sungsoo Ahn - Formado pela Julliard School, o coreógrafo fundou sua companhia em 1991, em Nova Iorque, mudando sua sede para Seul, em 1997. Desde então, produziu na Coreia 24 obras inéditas, incluindo coreografias para o National Ballet of Korea e National Dance Company of Korea. Recebeu vários prêmios, entre eles o *Korean Dance Critics Award*, em (2001), *Dance Art Award* (2005) e *Prix Benois de la Danse* (2006).

안성수픽업그룹

안성수픽업그룹의 대표 레퍼토리인 '볼레로 연작시리즈'는 10여 년에 걸쳐 8번의 다양한 변모를 보여주었다. 지금까지의 <볼레로> 작품이 기본적인 틀 내에서의 변형, 발전이었다면 이번 <Mating Dance>는 그 틀을 던지고 난 뒤에 새롭게 바라본 테마와 움직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성수 픽업그룹은 2001년 <시집>으로 '춤비평가상', 2004년<선택>으로 '몸'지 선정 '무용예술상(작품상)', 200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올해의 예술상(최우수상)', 2005년 '무용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브누아 드 라 당스'에 <볼레로>로 작품상 후보에 올라 볼쇼이 극장에서 갈라 공연을 갖는 등 국내외에서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Sungsoo Ahn Pick-Up Group was founded in 1991 when Ahn was at the Juilliard School in New York.

1st Period (1991~96): The company members consisted of dancers who had worked in New York. They performed at numerous places, including the Joyce Theater, American Dance Festival, Central Park Summer Stage, Lincoln Center Outdoor Festival and Dance Theater Workshop.

2nd Period (1998~present): Ahn reestablished the company in Seoul in 1998. He works with dancers from a variety of backgrounds, focusing more on sincerity than dance technique. Sungsoo Ahn Pick-up Group has pursued unique musical interpretations for dance and released new dance works every year. In April 2006, the company performed Bolero at the Bolshoi Theatre in Moscow, Russia, as a nominee for the Prix Benois de la Danse award.



Blue Elephant Company - "Soloparty"

Uma cama, algumas plantas, fotos na parede. In-Jung Jun convida o público para o seu quarto, tornando-o como parte de seu interior, enquanto ela se movimenta em uma área entre o público e o privado, o dentro e o fora, a intimidade e o isolamento. Seu corpo em movimento constante, muda o ponto de referência do público.

Ela atua suavemente com diferentes versões dela mesma, revelando algo pessoal em um movimento, pegando de volta no próximo ou trazendo a imagem a um ponto absurdo.

Constantemente interagindo com In-Jung, o músico Simon Rummel toca vários instrumentos. O videoartista Oliver Griem contribui com imagens ao vivo. Juntos, os artistas constroem uma delicada estrutura onde a pausa é tão importante quanto a imagem, a frase musical ou o solo de dança.

블루 엘레펀트 댄스컴퍼니

2002년에 전인정이 만든 블루 엘레펀트는 춤, 음악에서부터 조형, 그림, 비디오 아트에 이르는 폭넓은 아티스트와 함께 하고 있다. 블루 엘레펀트는, '당스 아 릴르(Danse a Lille, 프랑스)'의 젊은 안무가 부분인 "Les Reperages", 스위스 탄즈타그 베른(Tanztage Bern), 서울세계무용축제(Sidance)와 같은 무용축제에 초대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의 문화 프로그램에 초청되기도 했다. 블루 엘레펀트는 한국과 독일, 그밖에 유럽지역에서 광범위하게 활동하고 있다.

Blue Elephant Company was founded by In-Jung Jun in 2002. Here, artists of different fields come together, from dance and music to sculpture, painting and video art. The group's works have been praised by critics for their original language of movement, thrilling imagery and magical poetry. Blue Elephant productions have been invited to prestigious festivals such as Danse Lille / Reperages (France), Tanztage Bern (Switzerland), and SiDance (Korea), and have also been selected for the cultural program of the International Book Fair in Frankfurt, Germany. With the German theater Tanzhaus NRW acting as co-producer, Blue Elephant Company has produced seven full-length dance evenings. The group has toured extensively in Korea, Germany and many other European countries.



Park na hoon - "About Three airs"

Em "About Three airs", três bailarinos dançam vestidos com enormes infláveis, criando uma interface, onde o que parece grande e forte é composto apenas de ar. Para o coreógrafo Park Na Hoon, estes "organismos cheios de ar" representam a força da verdade, escondida dentro de objetos e realidades existentes na vida das pessoas.

Park Na Hoon - trabalha em colaboração com Jung Hwa Chol, um ícone da arte moderna coreana. Professor da Universidade Sung Kyun e Escola Dok Won Arts, Park Na Hoon acumulou vários prêmios em sua carreira, incluindo "melhor coreógrafo", em 2004, pelo Arts Concil Korea.

박나훈무용단

2004년 평론가가 뽑은 최고의 안무가 박나훈과 한국 현대미술의 아이콘 최정화가 공동작업을 한다. 2003년 정부로부터 신진 예술가로 선정 되어 해외 연수를 받았고, 2004년 평론가가 선정한 젊은 안무가전에 선정 되었으며 최고 안무가상을 수상한 박나훈은 2006년 경기문화재단으로부터 무대창작지원자로 선정되어 "숨이 놀다"를 발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Na Hoon Park, a distinguished choreographer chosen by critics as the best choreographer of 2004, works in collaboration with Jung Hwa Choi, an icon of Korean modern art. Their work is a course of finding truth, hidden objects and existence in reality of our lives.

Na Hoon Park has been active not only as a choreographer but also as a lecturer. He was selected as a new and powerful artist by Arts Council Korea in 2003, which gave him an opportunity to study abroad, and he was chosen in 2004 as a young and distinguished choreographer by critics, who awarded him the prize of best choreographer. In 2006, he was selected by the Gyeonggi Culture Foundation as the recipient of a creation fund, which he used to choreograph and perform the piece "Breath Play".



Ahn Aesoon Dance Company - "Circle ? After the Other"

Esse trabalho fala sobre a influencia estrangeira nos direcionamentos de cultura coreana. O coreografa Ahn Ae-soon coloca sua dança como essência de libertação e tentativa de dar continuidade ao ciclo da vida. Baseado nas características coreanas de música e movimento, o trabalho reflete sobre as distorções culturais.

Ahn Ae-soon - com sua liderança em dança moderna, registrada no The Oxford Dictionary of Dance, e no International Dictionary of Modern Dance, a coreografa Ahn Ae-soon construiu uma carreira autoral harmonizando a beleza da dança tradicional coreana com os movimentos da dança moderna. Seus espetáculos trazem um retorno positivo do público, pois traçam de forma divertida um ambiente festivo.

안애순무용단은 한국 춤사위와 전통적 아름다움을 현대무용과 조화시켜 독자적인 춤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1985년 무용단 창단 이래 안무가 안애순은 국제적으로 캐나다 몬트리올 댄스, 프랑스 Jeune Ballet de France 단체와 다수의 안무프로젝트 작업을 하였으며, 1998년 프랑스 바를레 국제안무대회(Les Rencontres Chorégraphiques Internationales de Seine Saint-Denis) 그랑프리를 수상한 이후 독일 뒤셀도르프 WDA (World Dance Alliance Europe-Festival Global Dance), 싱가포르 아츠 페스티벌, 멕시코 세르반티노 예술제, 요코하마 댄스 컬렉션, 도쿄 댄스 비엔날레, 아트 서밋 인도네시아 2007에 초청되어 해외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Ahn Aesoon Dance Company is a leading modern dance organization that has built its own characteristics with unique choreography and experience, combining Korean traditional culture and modern dance. It finds something to say to modern Korean society through the impromptu nature, humor and Korean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traditional play form, and it focuses on communicating with spectators living in this era. Ahn Aesoon has cooperated internationally with MONTRÉAL DANSE and Jeune Ballet de France on choreography projects. After winning the grand prize of Les Rencontres Chorographiques Internationales de Seine-Saint-Denis in 1988, she and her company were invited to World Dance Alliance Europe-Festival Global Dance 2002 in Desseldorf, Germany, Singapore Arts Festival, the Cervantino Art Festival in Mexico, Dance Collection Yokohama in Japan, Dance Biennale Tokyo, and Arts Summit Indonesia 2007. These overseas performances have received much acclaim.



Directory

Festivals

Ansan Street Arts Festival
www.ansanfest.com

ChangMu International Arts Festival
www.changmu.co.kr

Chuncheon International Mime Festival
www.mimefestival.com

Festival Bo:m
www.festivalbom.org

Gwacheon Hanmadang Festival
www.gcfest.or.kr

International Modern Dance Festival (MODAFE)
www.modafe.org

Seoul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SIDance)
www.sidance.org

Seoul Performing Arts Festival (SPAF)
www.spaf21.com

Seoul International Dance Competition (SIDC)
www.sicf.or.kr

Theaters

Arko Arts Theater
artstheater.arko.or.kr

LG Arts Center
www.lgart.com

LIG Arts Halls
www.ligarhall.com

M Theater
www.mtheater.co.kr

Myungdong-Chongdong Theater
www.mct.or.kr

Post Theater
www.changmu.co.kr

Sejong Center for Performing Arts
www.sejongpac.or.kr

Seoul Arts Center
www.sac.or.kr

Organizations/Associations

Arts Council Korea
www.arko.or.kr

CID-UNESCO Korea Chapter
www.sidance.org

Dancers' Career Development Center
www.dcdcenter.or.kr

Dance Association of Korea
www.dancekorea.org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www.gokams.or.kr

Korean Contemporary Dance Association
www.modako.co.kr

Korea Foundation
www.kf.or.kr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ww.mcst.go.kr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www.sfac.or.kr

Dance Magazines

Choom
www.choom.co.kr

Dance Magazine MOMM
dancemomm@naver.com

Dance Forum
www.danceforum.com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PRESIDENTE Yong Jae Park
DIRETOR Yeon Woo
PROGRAM Jueun An
PRODUCTION Downon Yi
PROTOCOL Young-in Lee
TECHNICAL DIRECTOR Ki-Nam Park

PREFEITURA DA CIDADE DE SAO PAULO

MAYOR Gilberto Kassab
SECRETARY Carlos Augusto Calil
ADJUNCT SECRETARY José Roberto Sadek
CHIEF OF CABINET Paulo Rodrigues

Departamento de Expansão Cultural

DIRETOR Branca Lopez Ruiz
PROGRAM DIRECTOR Clara Lobo
THEATRE PROGRAMMING Nany Semicek
MUSIC PROGRAMMING Katia Bocchi
PRODUCTION DIRECTOR Sueli Andreatto
THEATRE COORDINATION Sheylli Caleffi
COORDENAÇÃO DO TEATRO Sheylli Caleffi
SMC SP DANCE ADVISOR, CURATOR for BRASIL: KOREAN CONTEMPORARY DANCE WEEK
Lara Pinheiro